교회사학 제19호 2021년 (pp. 83~128)
https://doi.org/10.35135/casky.2021.19.83

#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 현황과 검토

이석원*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Ⅰ. 머리말
Ⅱ. 최양업 신부가 작성한 자료
Ⅲ. 동료 선교사제들이 작성한 자료
Ⅳ. 신자들의 증언·진술 기록과 구전 자료
Ⅴ. 맺음말

〈국문초록〉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인 2021년을 맞아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된 자료를 정리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향후 새로운 사료 발굴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했다.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는 최 신부가 작성한 자료와 다른 이들이 작성한 자료로 양분할 수 있다. 최 신부가 작성한 자료는 서한이 대표적이지만 서한 외에도 천주가사, 번역문까지 포함된다. 다른 이들이 작성한 자료는 다시 동료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이 작성한 자료와 신자들의 증언 기록과 구전 자료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최양업 관련 사료를 정리, 검토했으며, 해당 자료들의 내용과 전거 등을 도표화하여 부록에 정리했다.

이러한 검토 작업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 최양업 신부와 연관된

*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중국 천주교회의 자료를 검색해야 하고, 교회뿐 아니라 관련 있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의 정부 문서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 자료에 대한 재검토 작업 역시 필요하다. 사료의 서지 사항과 내용을 확정하는 정본화(定本化)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료의 재검토와 새로운 사료 발굴, 정본화 작업을 바탕으로 이미 자료집으로 간행된 사료와 흩어져 있는 사료를 종합하여 새롭게 자료집을 편찬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최양업 신부, 최양업 신부 관련 자료,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의 서한, 사료의 정본화, 신자들의 증언, 구전 자료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Ⅰ. 머리말

최초의 한국인 신학생이자 두 번째 한국인 사제로서 12년간 사목활동을 했던 최양업 신부은 한국천주교사에 큰 공헌을 남겼다. 이러한 최 신부에 대한 사료를 수집, 정리하여 간행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1] 『최양업 신부 서한집』이 1984년에 번역되었다.[2] 최 신부의 현양 운동과 시복시성이 추진되면서 서한을 포함한 관련 사료를 종합하여 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96년 최양업 신부 탄생 175주년 기념으로 청주교구 배티사적지에서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1~3집과 부록이 1996~1997년에 간행되었다.

전기자료집은 제1집 『최양업 신부의 서한』(1996)[3], 제2집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1997), 제3집 『증언록과 교회사 자료』(1996), 부록 『기해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997)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같은 시기에 간행된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3집(1996~1997년)[4]과 비견될 수 있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최양업 신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진

1) 선구적인 성과로는 유영근 신부가 1947~48년에 집필한 「최 도마 신부 전기」를 들 수 있다. 「최 도마 신부 전기」는 1949년 4월부터 1950년 6월까지 『경향잡지』에 연재되었고, 6.25전쟁으로 유 신부가 납북된 이후 중지되었다가 원고가 발견되어 1956년 1월부터 4월까지 연재를 완료했다. 이 전기에는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인용된 각종 서한들과 자료가 활용되었고 다른 선교사제들의 서한과 구전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2) 임충신·최석우 역주, 『최양업 신부 서한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3) 2009년에 수정·보완된 개정판이 간행되었다. 청주 교구 배티성지·양업교회사연구소 편,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서한집』, 천주교 청주교구, 2009.

4) 3권으로 구성된 김대건 신부 자료집은 2020~2021년에 다시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제1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1996)[2020년 개정판], 제2집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1996)[2021년 개정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활동과 업적』], 제3집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1997)[2021년 개정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순교』]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행·축적될 수 있었다.[5)]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인 2021년을 기준으로 전기 자료집이 간행 이후 20년 이상, 2009년 개정판 서한집(역주본)이 간행된 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발굴된 자료도 있고, 기존에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역주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제의 서한들도 속속 번역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도 한국천주교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파리외방전교회 문서, 전교회연보]들을 목록화하고 원본을 판독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학계의 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가능한 한 지금까지 소개된 자료를 정리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향후 새로운 사료 발굴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를 검토하면서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을 기준점으로 삼아 정리했다.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는 크게 나눠보면 최 신부가 작성한 자료와 다른 이들이 작성한 자료로 양분할 수 있다. 최 신부가 작성한 자료는 사목서한이 대표적이지만 서한 외에도 천주가사, 번역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검토했다. 다른 이들이 작성한 자료들 중 동료 선교사제들의 서한은 일찍부터 그 중요성에 주목을 받았고 전기 자료집에도 수집·정리되어 있다. 필자는 기존에 소개된 자료 외에 새로 번역되거나 정리된 선교사제의 서한들을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신자들의 증언을 채록한 기록[증언록]과 관변 측 기록[신자들의 심문-진술], 가전전승 및 구전 자료도 함께 검토하여 정리했다. 검토 과정에서 정리한 관련 자료의 전거와 내용을 도표화하여 부록에 첨부했다.

본 논문이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를 총망라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지

5) 최양업 신부에 대한 연구 현황은 김수태, 「최양업 신부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교회사학』 19, 수원교회사연구소, 2021.9, 43~81쪽을 참조할 것.

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본 논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Ⅱ. 최양업 신부가 작성한 자료

### 1. 최양업 신부가 작성한 사목서한 -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서한집』(2009)

최양업 신부의 사목서한[라틴어 원본]은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A-MEP)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서한들을 판독하여 역주한 책자는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6] 최근의 역주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2009년 개정판이다. 서한 원본을 교감하여 판독한 자료집도 2010년 주교회의 문화위원회에서 나왔다.[7] 역주서에는 모두 19통의 서한이 실려 있는데, 발신인, 발신처, 수취인, 전거 등의 내용은 부록 〈표1〉에 정리했다. 원본 전거의 쪽수는 역주서에 나와 있지 않아 판독 자료집을 근거로 새로 추가했다.[8]

9번 발췌본을 제외한 18통의 서한 가운데 577권에 들어 있는 14통은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원본이고, 579권에 들어 있는 4통은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것으로 사본이다. 18통의 서한은 1997년 6월 23일 파리외방전교회로부터 한국천주교회에 기증되어, 서울의 절두산 순교박물관

6) 임충신·최석우 역주, 『최양업 신부 서한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배티 사적지 편, 『최양업 신부의 서한』(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1집), 청주교구, 1996; 정진석,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가톨릭출판사, 2006; 청주 교구 배티성지·양업교회사연구소 편,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서한집』, 천주교 청주교구, 2009.

7)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A-MEP Vol. 577, 579 필사 문서 판독 자료집 상세 목록』,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10.

8) 최양업 신부 서한의 개정판이 나온다면 원본 전거의 쪽수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현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9)]

9번 서한은 바우링 영국 주중 공사 겸 홍콩 총독이 영국의 외무장관 클라렌든에게 보낸 1854년 8월 25일자 서한에 들어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10)] 선교사제의 서한이 서양 외교문서에 인용된 사례는 적지 않으며, 선교사제가 직접 외교관에 서한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11)] 따라서 최양업 신부의 서한이 다른 외교 문서에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프랑스의 동아시아 진출을 맡고 있던 '해군 및 식민지부'의 문서나 영국, 러시아 등 열강의 외교문서를 수집, 검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2)]

2009년 개정판에는 19통의 서한이 실려 있지만, 뒤에 언급할 추가 서한 2통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최양업 신부의 서한은 21통이다. 따라서 새로 확인된 2통의 서한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정판 역주서가 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 최양업 신부가 작성한 사목서한 [추가 확인] - 『교회와 역사』 459호[13)]

2013년에 간행된 『교회와 역사』 459호에는 새로 발굴된 최양업 신부의 서한 2통이 소개되어 있는데, 김상균 신부가 번역하고 방상근이 각주 및 해제를 붙였다. 2통의 서한을 시기로 배열하면 2009년 개정판 역주서의 14번과 15번 사이, 18번과 19번 사이에 위치된다. 내용상 비슷한 시

9) 2009년 개정판의 판독후기(9~11쪽)[최승룡 신부]과 해제(201~206쪽) 참조.

10) 전기자료집 제2집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1997)에 소개되었는데, 개정판을 내면서 서한집에 포함되었다.

11) 이석원, 『19세기 동서양 충돌과 조선 천주교』,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106~108쪽, 156~159쪽 도표 참조.

12)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프랑스 외교문서를 수집정리, 역주하여 자료집을 낸 적이 있다. 「韓佛關係資料(1846~1856)」, 『교회사연구』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77, 149~258쪽.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韓佛關係資料(1866~1867) -병인양요-」, 『교회사연구』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그 외에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편역, 『프랑스외무부문서 1, 1854~1899』, 국사편찬위원회, 2002. ; 박병선, 2008,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태학사, 2008. ; 박병선, 2013, 『1866년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조율, 2013 등에서 프랑스 외교문서를 인용하고 있다.

13) 「자료 소개 - 최양업 신부가 베롤 주교에게 보낸 서한」, 『교회와 역사』 459(2013년 8월호), 22~37쪽.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기에 작성한 서한과 큰 차이는 없지만 새로 확인된 서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2통 서한의 발신인, 발신처, 수취인 등의 내용은 부록 〈표 2〉에 정리했다.

만주대목구는 조선대목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대목구로 인적 왕래 및 서신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도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와 서한을 주고 받았다. 파리외방전교회의 고문서고에는 만주대목구의 자료들이 562~567권으로 분류되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조선 교회와 관련된 시기의 자료로는 562권(1840~1860), 563권(1824~1865), 566권(1838~1898)이 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한국 교회와 관련된 자료들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도 438권(1780~1787), 439권(1788~1800), 440권(1801~1817), 441권(1818~1843), 447권(1768~1785), 448권(1786~1804), 449-1권(1805~1817), 449-2권(1818~1835), 450-1권(1836~1841), 450-2권(1842~1848), 450-3권(1849~1857) 등이 조선 교회와 관련된 시기의 자료들인데, 이 자료들 역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14]

## 3. 천주가사

천주교의 신앙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한 1886년 이후에 필사·기록된 천주가사는 최양업 신부의 작품이라고 전해졌으며, 이를 가첩에 명시한 경우도 있다. 즉 최양업 신부가 사목활동을 하던 시기에 천주교가 종교적 기반을 갖추고 민중들 사이에서 급속히 교세를 확장했으며, 최 신부가 사목활동의 일환으로 천주가사를 창작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 아래 천주가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 신부의 저작 여부를 증명해 줄 다른 명확한 문헌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14) 「자료 소개 - 최양업 신부가 베롤 주교에게 보낸 서한」, 『교회와 역사』 459(2013년 8월호), 37쪽.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있다.[15] 최양업 신부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천주가사를 모은 가첩의 이름, 천주가사 편수, 천주가사 제목 등은 부록 〈표3〉에 정리했다.

조지형의 연구에 의하면, 천주가사를 수록한 주요 문헌[8종]에서 최양업 신부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것을 정리하면 22편이 된다. 이중 최양업 신부를 저자로 기록한 가첩은 3종이다. 『박동헌본 가첩』[16]에는 "최도마신부져술 / 죠선 최신부 저술 종", 『김약슬본 가첩』[17]에는 "대한국 탁덕 최도마 져술", 『김동욱본 가첩』[18]에는 "崔多默神父作 天主讚歌"로 나온다.[19]

최양업 신부 저작 가사(22편) : ① 「사향가(思鄕歌)」, ② 「선종가(善終歌)」, ③ 「사심판가(私審判歌)」, ④ 「공심판가(公審判歌)」, ⑤ 「삼세대의(三世大義)」, ⑥ 「천당강론(天堂講論)」, ⑦ 「지옥강론(地獄講論)」, ⑧ 「십계강론(十誡講論)」, ⑨ 「영세(領洗)」, ⑩ 「견진(堅振)」, ⑪ 「고해(告解)」, ⑫ 「성체(聖體)」, ⑬ 「종부(終傅)」, ⑭ 「신품(神品)」, ⑮ 「혼배(婚配)」, ⑯ 「칠극(七克)」, ⑰ 「제성(提醒)」, ⑱ 「행선(行善)」, ⑲ 「신덕(信德)」, ⑳ 「망덕(望德)」, ㉑ 「애덕(愛德)」, ㉒ 「옥중제성(獄中提醒)」

이중 ⑤ 「삼세대의」, ⑥ 「천당강론」, ⑦ 「지옥강론」은 1840년에 순교한 민극가(스테파노)의 작품이고, ㉒ 「옥중제성」은 역시 1840년에 순

15) 조지형, 「최양업 신부 소작 天主歌辭의 목적과 특성」, 『누리와 말씀』 34.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3, 324~325쪽.

16) 김옥희 수녀(한국복자수녀원) 소장. 1913년 필사본. 「션종가」 「ᄉᆞ심판가」 「공심판가」 (*3편 수록) 김옥희, 「천주가사에 관한 사적 고찰」,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 Ⅰ』, 계성출판사, 1986에 소개됨. (조지형 논문에서 재인용)

17)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연대미상 필사본. 「삼세대의」 「텬당강론」 「디옥강론」 「십계강론」 「령셰」 「견진」 「고히」 「셩톄」 「죵부」 「신픔」 「칠극」 「혼비」 「졔셩」 「힝션」 「이덕」 (*15편 수록) (조지형 논문에서 재인용)

18)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연대미상 필사본. 「ᄉᆞ향가」 「(삼세대의)」 「텬당이라」 「디옥가」 「십계강론」 (*5편 수록) 김동욱, 「西敎 傳來 후의 天主讚歌—「思鄕歌」, 기타에 대하여」, 『人文科學』 21,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9에 소개됨. (조지형 논문에서 재인용)

19) 조지형, 위의 논문, 325~326쪽. 같은 논문 329쪽에서 조지형은 김동욱본 가첩 표지의 "崔多默神父作 天主讚歌"는 떨어져 나간 표지를 새로 만들면서 김동욱 교수가 써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교한 이문우(요한)의 작품이라는 것이 차기진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20] 그런데 이전부터 천주가사 중에 최양업 신부가 직접 작성한 가사 숫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고, 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21]

조지형은 ① 「사향가」는 작자 미상으로 보았고, ⑧ 「십계강론」은 ⑤~⑦과 같이 민극가의 작품으로 추정했다.[22] 최근 김문태의 연구에 의하면, '최도마신부져술'이라 명기된 ② 「선종가」·③ 「사심판가」·④ 「공심판가」는 『ᄉᆞ말론』(『사종략의(四終畧意)』라는 한문서학서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당시 한문서학서를 비롯한 교회서적을 번역하거나 필사하던 양반이나 중인 신분의 신심 깊은 지식인 신자였을 것이라 추정했다.[23]

이와 같이 천주가사의 창작 경위라든가 저자 문제[최양업 신부 저작 여부]는 계속적으로 연구되겠지만, 사료로서 '천주가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서지학적 문헌비판적 검토와 연구가 선결되어야 한다.

## 4. 번역한 자료

### 1) 1839년(기해) 순교자들의 행적

1846년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는 현석문(가롤로) 등이 기해년(1839) 순교자들의 행적을 정리한 『기해일기』를 프랑스어로 번역하

20) 차기진, 「조선후기 천주가사에 대한 재검토」, 『교회와 역사』 27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 차기진, 「조선후기 천주가가 작가고」, 『부산교회사보』 7, 부산교회사연구소, 1999. 차기진은 『기해·병오 순교자 증언록』의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21) 논자에 따라 최양업 신부의 친작은 27수, 22수, 19수 이상, 19수, 16수, 6수, 4수, 확정불가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었다. 김문태, 「천주가사 〈션죵가〉, 〈심판가〉, 〈공심판가〉의 창작 기반 고찰」, 『교회사연구』 5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187쪽.

22) 조지형, 위의 논문, 328~330쪽.

23) 김문태, 위의 논문, 168쪽, 180쪽, 188쪽.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는 한편 병오년(1846) 순교자들의 행적을 새로 저술하여 홍콩대표부에 있는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에게 보냈다. 주교의 지시에 따라 최양업 부제는 순교자 행적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파리 신학교의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냈다. 이때 병오년 순교자 행적 부분은 메스트르 신부가 번역했다.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가 번역한 '순교자들의 행적'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24]

현재 최양업 부제의 라틴어 번역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초고본(A-MEP, Vol.579, f.150[총44쪽])과 수정본(A-MEP, Vol.577, ff.987~1043)이 그것이다.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최양업 부제의 라틴어 번역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25]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거나 최양업 부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용을 고친 경우도 있다. 최 부제의 초고본과 수정본을 대조해 보면, 수정본을 만들 때 초고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삽입한 경우가 확인된다.[26] 두 가지 필사본을 정밀하게 대조해 본다면 이러한 경우는 더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페레올 주교의 원본에 없는 내용을 최양업 부제가 삽입했다면 최 부제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최 부제의 두 가지 라틴어 번역본에 대한 면밀한 대조·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7]

순교자 행적은 최양업 신부가 저술한 것이 아니라 원문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라고 볼 수 없다.[28] 그러나 행적을 번

24) 임충신·최석우 역주, 『최양업 신부 서한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청주교구 배티사적지 편, 『기해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부록), 1997.

25)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2012년에 간행한 『페레올 주교 서한』에 수록된 도표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순교자 82위 일람'(632~655쪽)에 페레올 주교의 프랑스어 원본과 최양업 부제의 라틴어 번역본과의 차이를 비교해 놓았다.

26) 이를테면 김대건 신부의 행적에서 세례 받은 나이에 관한 내용은 페레올 주교의 원본에도 없는 내용이다.

27) 본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초고본에 없는 내용이 수정본에 삽입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향후 두 가지 라틴어본의 대조·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심사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동의하며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28) 위에 언급한 심사위원은 페레올 주교의 행적 원본에 없는 내용이 최 부제의 라틴어 번역본에 삽입되었으므로, 위의 행적도 '최양업 관련 사료'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검토해봐야 할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역하는 과정에서 순교자 행적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자신의 부친인 최경환(프란치스코)의 행적이 약소하다는 것과 모친 이성례(마리아) 행적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조선에 들어온 후 최양업 신부는 사목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증언들을 수집하여 부모의 약전을 직접 서술하고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냈다.[29] 이후 부모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하여 서술했고,[30] 다른 순교자에 대한 자료 수집에도 힘을 기울여 최(해성) 요한에 대한 약전을 작성했다.[31] 최 신부는 계속해서 순교자들과 관련된 자료를 모았는데 1857년 부대목구장으로 임명된 다블뤼 주교가 공식적으로 천주교회사와 순교자 행적을 담당하게 되자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주교에게 제공했다.[32]

이를 통해 볼 때, 다블뤼 주교가 저술한 『조선 순교사 비망기』와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 최양업 신부가 제공한 자료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최 신부의 작업에는 순교자 행적 번역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성교요리문답』, 『천주성교공과』

1857년 조선천주교 최초의 시노드[3월 말 개최]와 대목구장의 사목서한[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教輪示諸友書), 8월 공포]을 통해 예비신자나 신자들이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정한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익혀야 했고, 사제는 그 학습 정도를 시험하여 그것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성사를 줄 수 있었다.[33] 이렇게 강화된 규정을 관철시키고 아울러

29) 1851년 10월 15일에 절골에서 작성한 8번째 서한

30) 1855년 10월 8일에 배론에서 작성한 11번째 서한

31) 1856년 9월 13일에 소리웃에서 작성한 12번째 서한

32) 1857년 9월 14일에 불무골에서 작성한 13번째 서한

33) 이 내용은 최양업 신부가 1858년 10월 3일에 오두재에서 작성한 서한[15번째 서한]에도 나온다. 베르뇌 주교가 '사본문답'을 전부 완전히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세례성사를 주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천주교를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천주교 서적의 번역과 유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베르뇌 주교는 선교사제들과 함께 기존의 기도문과 교리서적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 가면서 필요한 서적은 새로 번역하거나 저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동시에 서울에 목판소를 마련하여 천주교 서적을 널리 유통시키고자 했다. 언어의 장벽이 있는 프랑스인 선교사제에 비해 조선인 신부인 최양업 신부가 교리서와 기도서 번역 및 수정 작업에 큰 역할을 했다.[34]

>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일 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서들의 번역 작업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사목순회를 마치고 난 후인 내년(1860년) 여름 즈음에는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35]

> (1860년) 박해는 뜻하지 않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는데, 이를테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교리 문답서를 비롯해 여러 권의 기도서를 재검토, 수정, 증보했으며 그 외의 다른 서적도 여러 권 추가했어요. …… 더위가 오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 기도서[천주성교공과]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 게다가 그 서적들은 거의 전적으로 조선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작업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작해야 8, 9개월 그 작업에 매달렸을 뿐입니다.[36]

1861년 6월 15일 최양업 신부는 병으로 선종했지만 그해 8월 경 서

34) 이석원,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서울역사중점연구 10), 서울역사편찬원, 2021, 232~238쪽.

35) 다블뤼 주교가 1859년 9월말에 파리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 (내포교회사연구소 제공 초벌번역본)

36) 다블뤼 주교가 1861년 1월 24일에 부모에게 보낸 서한 ; 유소연 역,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353쪽.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울에 목판인쇄소가 건립되었으며[37] 9월 이전에 교리서(『성교요리문답』)가 인쇄되었다.[38] 1862년에는 이미 기도서(『천주성교공과』)가 교리서와 함께 신자들에게 배포되었다.[39] 이와 같이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사제들의 사목활동에서 가장 필수적인 교리서와 기도서가 우선 번역·간행되었된 것이다.[40]

최양업 신부가 주도적으로 수정·보완 작업을 한 『성교요리문답』는 1934년까지 공식 교리문답서로, 『천주성교공과』는 1972년까지 공식 기도서로서 사용되었다.[41] 천주교서적의 한글 번역[토착화]에 최양업 신부의 공헌이 컸음을 알 수 있다.

## Ⅲ. 동료 선교사제들이 작성한 자료

### 1.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이 작성한 서한[42]

최양업 신부에 관련된 자료 중 분량과 비중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료 선교사제들의 서한들이다. 1997년 간행된 전기 자료집 제2집은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파리외방전교회 선

37) 베르뇌 주교가 1861년 8월 2일에 만주대목구 프랑클레 신부에게 보낸 서한 ; 『베르뇌 주교 서한집』 하, 165쪽.

38) 베르뇌 주교가 1861년 9월 30일에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 ; 『베르뇌 주교 서한집』 하, 24쪽.

39) 베르뇌 주교가 1862년 1월 4일에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 ; 『베르뇌 주교 서한집』 하, 269쪽.

40) 이석원, 위의 책, 2021, 246~248쪽.

41) 『성교요리문답』의 영인본은 『한국 교회사 연구 자료 제15집』 제2권(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간행)에 실려 있으며, 『천주성교공과』의 영인본은 『한국 교회사 연구 자료 제17집』(한국교회사연구소, 1991년 간행)에 실려 있다.

42) 배티 사적지 편,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2집), 청주교구, 1997.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교사제들의 서한들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 서한의 작성자, 발신인, 발신처, 수취인, 전거 등의 내용은 부록 〈표4〉에 정리했다.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 중 조선 관련 문서뿐 아니라 '극동대표부'[마카오에서 1947년 홍콩으로 이전] 문서,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HB)를 포함하고 있고, 파리외방전교회[조선대목구]에 선교자금을 지원하던 전교회의 『전교회연보(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자료도 수록했다. 그런데 최양업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기 이전 시기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체로 김대건 신부 자료집 제2집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1996)[『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활동과 업적』(2021, 개정판)]과 중복되어 있다. 마카오 신학생 시절부터 중국으로 넘어가 조선 입국을 시도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최 신부는 김대건 신부와 함께 했던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료가 겹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1845년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 등이 조선에 입국한 뒤로 최양업 부제는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여러 차례 조선 입국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최양업은 1849년 사제 서품을 받고 그해 겨울 혼자 조선 입국에 성공했고, 선종하는 1861년까지 사목 활동을 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른 선교사제들의 서한을 통해 확인된다.

전기 자료집에 발췌·소개된 선교사제의 서한들 일부는 현재 번역[판독]이 되었기 때문에 역주본을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소개할 페레올 주교, 베르뇌 주교, 다블뤼 주교 서한이 여기에 해당된다.

## 2. 조선대목구 선교사제의 서한 [추가 확인]

위의 전기자료집 제2집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번역[판독]된 자료를 통해 추가로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최양업 신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페레올 주교, 베르뇌 주교, 다블뤼 주교의 서한을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검토했다.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 서한[43]에서는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주교가 작성한 12통 중에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849년 이전에는 최양업이 여러 차례 조선 입국에 실패했던 내용이 나오고, 1849년 입국 이후로는 최 신부의 사목 활동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이 서한들의 발신일, 수취인, 전거, 역주본 쪽수 등의 내용은 부록 〈표5-1〉에 정리했다.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 주교 서한[44]에서는 1855년 주교의 조선 입국 직전부터 1861년 최양업 신부가 선종할 때까지 주교가 작성한 23통과 초 신부 선종 이후에 주교가 작성한 서한 6통, 모두 30통 서한 중에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23통에서는 최 신부의 사목 활동, 체포 위기, 경신(1860년) 천주교 박해, 선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뒤의 6통에서는 최 신부 선종 이후 장례와 관할 구역, 주교의 회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30통 서한의 발신일, 수취인, 전거, 역주본 쪽수 등의 내용은 부록 〈표5-2〉에 정리했다.[45]

제5대 조선대목구장이며 최양업 신부 생전에는 부대목구장[부주교]였던 다블뤼 주교의 서한에도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파리외방전교회에서는 다블뤼 주교의 순교 이후 주교의 서한들을 정리하여 '다블뤼 문서'로 편집했는데,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내용은 제6권과 제8권에 실려 있다.

제8권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2018년 내포교회사연구소에서 역주본으로 간행되었다.[46] 이 역주서에는 1850년부터 1864년까지 다블뤼 주교가 작성한 서한 15통 중에 최양업 신부의 사목 활동, 체포 위기, 교회서

43)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44)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베르뇌 주교 서한집』 상하,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45) 원본 전거의 쪽수는 역주서에 나와 있지 않다. 개정본이 나온다면 전거의 쪽수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46) 다블뤼 문서 제8권은 역주본이 간행되었다. 지정환 판독·유소연 번역·방상근·김정환 감수,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적 번역, 선종, 사목구역 인수[47]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이 서한들의 발신일, 발신처, 수취인, 전거, 역주본 쪽수 등의 내용은 부록 〈표5-3-①〉에 정리했다.

다블뤼 문서 제6권 '동료 선교사제들과 숙모에게 보낸 편지'의 역주본은 아직 간행되지 않았고, 대신 판독본[서봉세 신부 판독]이 제8권의 판독본[지정환 신부 판독]과 함께 내포교회사연구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48] 제6권 중 1851년부터 1862년까지 주교가 작성한 서한 13통 중에 최 신부의 사목활동, 교회서적 번역, 선종, 사목구역 인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위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중 최 신부 관련 서한과 내용이 비슷함을 알 수 있는데 서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서한들 중 일부는 달레 신부의 원저를 번역한 『한국천주교회사』('달레 교회사'로 약칭)에도 소개되어 있다. 이 서한들의 발신일, 발신처, 수취인, 전거, '달레 교회사'의 번역[발췌] 쪽수, 판독본 쪽수 등 내용은 부록 〈표5-3-②〉에 정리했다.[49]

필자는 조선대목구장인 페레올 주교, 베르뇌 주교, 다블뤼 주교의 서한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 조선대목구 선교사제들인 메스트르 신부, 푸르티에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 페롱 신부의 서한을 검토하여 기존에 알려진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3.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서한

'최양업 신부 전기 자료집' 제2집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에는 최 신부의 동기 김대건 신부의 서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47) 최양업 신부의 선종 이후 신부의 사목 지역 중 경상도 지역에 다블뤼 주교가 방문하여 사목활동을 했다.

48) 내포교회사연구소사이트 '선교사자료〉다블뤼주교' http://www.djhistory.org/board_CawM08 (2021.9.8. 확인)

49)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판독본과 내포교회사연구소에서 초벌 번역한 파일을 제공 받아 도표를 작성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김대건 신부 서한(21통 중 19통 현존)[50] 중 10통에서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마카오에서 출발하여 만주(요동)에 이르는 과정, 만주 소팔가자의 체류 생활,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부제의 조선 입국 시도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김대건 신부의 서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김 신부 서한 10통의 발신일, 발신처, 수취인, 비고(최양업 신부와 관련), 역주본 쪽수[51] 등 내용은 부록 〈표6〉에 정리했다.

### 4. 『전교회연보』(APF) 기사

전교회의 기관지인 『전교회연보』에는 선교사제들의 서한이 대거 인용[발췌]되었는데 그중에는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에 확인되지 않는 유일본도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사료적 가치에 주목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전교회연보』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목록화하고[52] 해당 원본을 영인하여[53] 연구자에게 제공했다. 필자도 이 목록과 영인본을 바탕으로 최양업 신부 관련 자료 18개를 확인했다. 관련 자료의 권호쪽, 작성자, 발신일, 발신처, 수취인, 번역[발췌] 쪽수 등 내용은 부록 〈표7〉에 정리했다.

『전교회연보』에 확인되는 최양업 신부 관련 자료는 최양업 신부를 비롯하여 조선대목구의 대목구장과 선교사제, 만주대목구의 선교사제 등이 작성한 서한들이다. 관련 내용은 마카오 유학 시절, 만주(요동) 도착, 조선 입국 시도, 조선대목구 내 사목활동, 교회서적 번역에 걸쳐 있다.

---

50)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2020년 개정판.

51) 2020년 개정판의 쪽수를 도표에 제시했다.

52) 『Annales de la Propagantion de la Foi 한국 관련 기사 목록 및 내용 요약집 1824~1997』,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08.

53) 『Annales de la Propagantion de la Foi - Articles sur la Corée - Ⅰ, 1830~185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08.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은 대개 번역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양업 신부 전기 자료집' 제2집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1997)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활동과 업적』(2021, 개정판), '최양업 신부 서한집 2009년 개정판', 『페레올 주교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라자로회 소속으로 보이는 페브르 신부와 만주대목구 소속 메스나르 신부의 서한은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번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Ⅳ. 신자들의 증언·진술 기록과 구전 자료

### 1. 신자들의 증언 기록

순교자를 대상으로 한 증언록에는 최양업 신부에 대한 증언이 따로 채집되어 있지 않지만, 순교자와 증언자들의 신앙생활[성사 참여]과 관련하여 최 신부의 사목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839년과 1846년 순교자를 대상으로 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54]과 1866년 이후 순교자를 대상으로 한 『병인치명사적』[55]과 『박순집 증언록』[56], 1866년 순교자 29위[그중 24위가 시복시성됨]를 대상으로 한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차(교구)재판[57]에서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의 증언자, 증언대상자, 최양업 신부 관

54) 수원교회사연구소 대조역주,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2, 천주교 수원교구, 2011~2012.

55) 수원교회사연구소 대조역주, 『병인치명사적』 1~6, 천주교 수원교구, 2020.

56) 김영수 번역, 『박순집 증언록(Ⅰ Ⅱ Ⅲ)』, 성·황석두루가서원, 2001.

57) 수원교회사연구소 대조역주,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 천주교 수원교구, 2021~2024. [간행 예정]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련 내용, 증언록 전거 등 내용은 부록 〈표8-1〉에 정리했다.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에서 76회차 증인 김 프란치스코와 102회차 증인 이 마리아[최 신부의 제수]는 최양업의 신학생 선발과 유학에 대해 진술했다.

1849년 말 고국에 돌아와 1861년 6월 15일까지 12년간 사목활동을 하던 최양업 신부는 많은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었고, 그를 도와 복사와 마부 등으로 활약한 신자들이 있었다.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증인 선 막달레라는 시어머니[성인 허계임 막달레나]를 통해 천주교를 배우고 뒤에 최양업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병인치명사적』(3권, 4권)와 『박순집 증언록』(3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증언을 보면, 문경 한실[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상내리]에서 김 아우구스티노 집안 식구가 모두 최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병인치명사적』(23권)와 『박순집 증언록』(2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증언에 따르면, 맹인인 전 야고보가 천주교를 구전으로 배우고 12명의 식구를 모두 입교시킨 다음 최 신부에게 같이 세례를 받았다. 『병인치명사적』(6권)에 의하면, 최용은 암브로시오가 최 신부에게 안동에서 세례를 받은 후 상주로 이주하여 그곳 공소회장을 했다.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46회차 증인 김성서 요한은 자신이 원주 태생으로 다블뤼 주교에게 입교하고 최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40회차 증인 김흥민 요한은 충청도 지역에서 프티니콜라 신부가 사목활동을 할 때 신자와 갈등이 일어났고 다블뤼 주교의 지시로 최 신부가 와서 조사하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45회차 증인 김성도 치로의 진술에도 나온다.

『병인치명사적』(6권)에 의하면, 병인(1866) 순교자 최 안토니오는 최양업 신부의 일가로 나온다. 『병인치명사적』(24권)에 의하면, 김성우는 공주 반이울[현 충남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에 살 때 최 신부의 복사로 활동했는데, 1868년 배교자 이치교[최 신부의 마부였음]가 서울 포졸을 데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려와 잡혔다가 최 신부의 복사임을 당당히 밝히고 서울에서 순교했다. 전주의 병인 순교자이자 성인인 조화서 베드로가 최양업 신부의 마부였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인데, 『병인치명사적』(16권, 17권, 24권)과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76회차, 80회차)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신자들의 증언 기록을 통해 최양업 신부의 사목활동과 선교지역, 협력자들에 대해 알 수 있다.

## 2. 관변측 기록 속 신자들의 진술

관변측 기록[한문]에도 최양업 신부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데 천주교인에 대한 심문-진술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온다. 1839년과 1846년의 심문 기록은 김대건 신부 자료집[58]에서도 확인된다.

『일성록(日省錄)』 기해(1839) 8월 7일(양력 9월 14일) 김제준(이냐시오)와 정하상(바오로)의 심문 기록과 병오(1846) 5월 30일(양력 6월 23일) 김대건의 포도청 심문 기록에 최양업 관련 자료가 확인된다.[59] 관련 자료의 일자, 진술자, 최양업 관련 내용은 부록 〈표8-2-①〉에 정리했다.

『일성록』 기록에는 외국으로 보낸 신학생 3명 중 한 명인 최양업(崔良業)의 이름과 그 부친[최영환=최경환], 1839년 당시 부친의 거주지 과천[수리산]이 확인된다.

『포도청등록』[60]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심문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좌포도청등록』(영인본 하권)에만 '최 신부'가 나온다.[61] 관련 자료의 영인본 쪽수, 심문 일시, 심문 대상자의 이름, 최양업

58)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3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86~91쪽, 242~247쪽.

5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편년사〉일성록 https://kyudb.snu.ac.kr/series/subView.do#none (2021년 9월 8일 확인)

60)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 상중하(영인본), 보경문화사, 1985.

61)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위원이었던 하성래 교수가 정리한 포도청등록 인명 도표에 의거하여 필자가 영인본을 확인했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관련 내용은 부록 〈표8-2-②〉에 정리했다.

김성오(金聖五) 베드로는 기미년(1859)에 이미 죽은 조선인 최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버드루'라는 세례명을 지었다고 진술했다. 민효원(閔孝源) 라자로는 을묘년(1855)에 권경호(權景鎬)의 안내로 양인(洋人) 최 신부를 장동(長洞, 현 서울 중구 회현동) 권대수(權大秀) 집에서 만나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상기(徐常基) 베드로는 1855~1856년경 자암(紫巖, 현 서울 중구 봉래동) 정의배(丁義培)의 지휘로 그의 집에서 아국인(我國人) 최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지었다고 진술했다. 이 수산나는 1839년 무렵에 사서(邪書, 천주교 서적)를 이미 죽은 김 마르타[金末多]에게 배우고 그의 말에 따라 양인(洋人) 이[메스트르] 신부, 안[다블뤼] 주교, 장[베르뇌] 주교 및 아국인(我國人) 최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지었다고 진술했다. 김정인(金鼎仁) 시몬은 노(盧, 모방)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지은 다음 이후 안[다블뤼]·장[베르뇌]·최[양업] 세 주교(主教)에게 성사를 받으며 동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좌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5명 신자 중 김정인을 제외한 4명은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세례 받은 연도[1859년, 1855년, 1855~1856년]와 장소[서울 장동, 자암]도 확인된다. '양인 최 신부'나 '최 주교' 같이 사실과 맞지 않은 진술도 있지만, 정황상 최양업 신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변측 자료[심문 기록]을 통해서도 최양업 신부의 사목활동[연도와 장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측 자료 외에 관변측 자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3. 가전전승 및 구전 자료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가전 전승 및 구전 중 가장 잘 알려진 자료가 '최양업 신부 일가의 이력서'라고 불리는 세 가지 자료이다. 첫 번째 것은 최양업 신부의 생애를 약술한 「최 신부의 이력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최 신부의 넷째 동생 최신정(崔信鼎, 델레신포로)의 아내 즉 넷째 제수인 송 아가다를 중심으로 집안의 신앙 내력을 서술한 「송 아가다의 이력서」이며, 세 번째 자료는 최 신부의 셋째 동생인 최우정(崔禹鼎, 바시리오)를 중심으로 집안의 신앙 내력을 서술한 「최 바시리오 우정 씨 이력서」이다.

「최 신부의 이력서」는 최우정의 장남인 최상종(崔相鍾, 빈첸시오)이 1945년 이후 제천의 신자들이 배론[舟論]에 있는 최양업 신부의 무덤 앞에 묘비를 건립한 것에 감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송 아가다의 이력서」는 1927년에 구술을 시작하여 1933년에 완성한 증언 기록이다. 그런데 송 아가다가 1930년에 선종한 사실에서 볼 때 그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필(代筆)하여 완성시킨 것이 분명하며, 마지막 부분은 바로 대필자가 간략히 첨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 바시리오 우정 씨 이력서」도 최상종이 1939년에 저술한 것으로, 위 두 자료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다.[62]

이 자료는 1982년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순교자와 증거자들』[63] 179~240쪽에 수록되었으며, 1996년에는 현대표기법으로 바꾸고 내용이 수정·보완되어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3집 『증언록과 교회사 자료』 29~104쪽에 실렸다.

'최양업 신부 일가의 이력서'보다 앞서 최양업 신부 관련 구전 전승이

62) 배티 사적지 편, 『증언록과 교회사 자료』(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3집), 천주교 청주교구, 1996, 11쪽.

6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소개된 글이 있는데, 정규량 신부가 1929년 『경향잡지』 860호에 게재한 「군난 때 미담」가 그것이다. '배론의 최 신부 묘소'에 대해 서술하면서 당시 노인들에게 전승되어 오던 최양업 신부의 선종 관련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64] 또한 유영근 신부의 「최 도마 전기 17」(『경향잡지』 1057호)에는 정규량 신부가 최(경신) 바르바라[65]에게 묻고 들은 최양업 신부의 선종 관련 구전을 채록했다.[66]

1925년 기해병오 순교자 79위에 대한 시복식이 거행되면서 한국천주교회 내에서는 순교자 및 그와 관련된 사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에 따라 사적지를 조사, 발굴하거나 구전 전승 자료를 채집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분위기에서 위의 가전전승 및 구전 자료가 수집, 채록된 것으로 보인다.

1970~80년대 성지 성역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양 운동과 맞물려 사적지를 발굴하거나 구전 자료를 채집하는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때 이후 수집된 구전 자료들은 대부분 천주교가 금압(禁壓) 받던 시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 증언이 불가능하고 전언된 내용을 명확히 고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64) 원주읍 정(규량) 신부, 「군난 때 미담」, 『경향잡지』 23권 660호, 1929.4.30, 187~188면.

65) 원주읍 정(규량) 신부, 「군난 때 미담」, 『경향잡지』 23권 659호, 1929.4.15, 164면에는 최경신 바르바라[당시 82세]가 배론학당에 대해 진술한 구전을 소개했다.

66) 유영근 신부, 「최 도마 전기 17」, 『경향잡지』 48권 1057호, 1956.4.1, 137~138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V. 맺음말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는 크게 나눠 보면 최 신부가 작성한 자료와 다른 이들이 작성한 자료로 양분할 수 있다. 최 신부가 작성한 자료는 사목 서한이 대표적이지만 서한 외에도 천주가사, 번역문까지 포함된다. 다른 이들이 작성한 자료는 다시 동료 선교사제들이 작성한 자료와 신자들의 증언·진술 기록과 구전 자료로 나누어진다.

최양업 신부의 서한은 기존에 알려진 19통 외에 2013년 2통이 새로 확인되었다. 새로 발견된 서한은 모두 만주대목구장에게 보낸 것으로, 파리외방전교회의 고문서고에 있는 만주대목구의 자료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 신부의 서한이 서양 국가의 외교 문서에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프랑스의 동아시아 진출을 맡고 있던 '해군 및 식민지부'의 문서나 영국, 러시아 등 열강의 외교문서를 수집, 검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천주가사는 최양업 신부의 작품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최 신부의 저작 여부를 증명해 줄 다른 명확한 문헌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천주가사 중에 최양업 신부가 직접 작성한 가사 숫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고, 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천주가사의 창작 경위라든가 최 신부 저작 여부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되겠지만, 사료로서 '천주가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서지학적 문헌비판적 검토와 연구가 선결되어야 한다.

1846년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는 기해년(1839)·병오년(1846) 순교자들의 행적을 작성하여 홍콩대표부에 있는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에게 보냈다. 주교의 지시에 따라 최양업 부제는 순교자 행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적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냈다. 최 부제의 라틴어 번역본은 초고본과 수정본이 있는데 서로 대조해 보면 초고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수정본에 삽입한 경우가 확인된다. 페레올 주교의 원본에 없는 내용을 최양업 부제가 삽입했다면 최 부제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최 부제의 두 가지 라틴어 번역본에 대한 면밀한 대조·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 주교는 선교사제들과 함께 기존의 기도문과 교리서적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했다. 언어의 장벽이 있는 프랑스인 선교사제에 비해 조선인 최양업 신부가 교리서와 기도서 번역 및 수정 작업에 큰 역할을 했다. 1861년 6월 15일 최 신부는 병으로 선종했지만 그 해 8월 경 서울에 목판인쇄소가 건립되었으며 9월 이전에 교리서인 『성교요리문답』이 인쇄되었다. 1862년에는 기도서인 『천주성교공과』가 교리서와 함께 배포되었다. 이와 같이 천주교서적의 한글 번역[토착화]에 최양업 신부의 공헌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최양업 신부에 관련된 자료 중 분량과 비중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료 선교사제들의 서한들이다. 1997년 간행된 전기자료집 제2집은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의 서한들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번역[판독]된 자료들인 페레올 주교, 베르뇌 주교, 다블뤼 주교, 김대건 신부의 서한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추가로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다른 조선대목구 선교사제들인 메스트르 신부, 푸르티에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 페롱 신부의 서한을 검토하여 기존에 알려진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교회의 기관지인 『전교회연보』에는 선교사제들의 서한이 대거 인용[발췌]되었는데 그중에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자료 18개가 확인된다. 해당 자료는 대개 번역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라자로회 소속으로 보이는 페브르 신부와 만주대목구 소속 메스나르 신부의 서한은 번역되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번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교자를 대상으로 한 증언록에는 최양업 신부에 대한 증언이 따로 채집되어 있지 않지만, 최 신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신자들의 증언 기록을 통해 최 신부의 사목활동과 선교 지역, 협력자들에 대해 알 수 있다.

관변측 기록[한문]에도 최양업 신부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데 천주교인에 대한 심문-진술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온다. 『일성록(日省錄)』에 나오는 기록을 통해 외국으로 보낸 신학생 3명 중 한 명인 최양업(崔良業)의 이름과 그 부친[최영환=최경환], 1839년 당시 부친의 거주지 과천[수리산]이 확인된다. 『좌포도청등록』에 실린 5명 신자의 심문 기록에 '최 신부'가 확인된다. 5명 신자 중 4명은 모두 최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세례 받은 연도와 장소가 확인된다. '양인 최 신부'나 '최 주교' 같이 사실과 맞지 않은 진술도 있지만, 정황상 최양업 신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변측 자료[심문 기록]을 통해서도 최양업 신부의 사목활동[연도와 장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측 자료 외에 관변측 자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920년대부터 '최양업 신부 일가의 이력서'를 비롯한 여러 구전 자료가 채록되기 시작했다. 이는 1925년 기해·병오 순교자 79위의 시복식을 계기로 순교자와 사적지, 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가전 전승 및 구전 자료가 수집, 채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70~80년대 성지 성역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양 운동과 맞물려 사적지를 발굴하거나 구전 자료를 채집하는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때 이후 수집된 구전 자료들은 대부분 천주교가 금압(禁壓) 받던 시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 증언이 불가능하고 전언된 내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용을 명확히 고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상으로 2021년 현재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 신부가 작성한 서한을 비롯한 선교사제들의 서한 자료, 신자들의 증언 기록, 관변 측 자료, 구전 전승 자료들을 정리하여 소개했으며, 그중 판독본이나 역주본으로 간행된 자료는 그 서지 사항을 병기했다. 소개된 자료들의 내용과 전거 등은 도표화하여 부록 〈표1〉~〈표8〉에 정리했다.

이러한 현황 검토 작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결할 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 기존의 시야를 넓혀 19세기 중반 조선천주교사뿐만 아니라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천주교사의 관점 아래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최양업 신부와 연관된 중국 천주교회의 자료를 검색해야 하고, 교회 내부뿐 아니라 프랑스의 정부 문서, 연관된 다른 유럽 국가의 정부 문서도 검색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동시에 기존 자료에 대한 재검토 작업 역시 필요하다. 사료 원본과 판독본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천주가사, 가전 전승 및 구전 자료에 대한 냉철한 사료 비판도 부족했다. 따라서 사료에 대해 철저히 교감(校勘)을 하여 사료의 서지 사항과 내용을 확정하는 정본화(定本化)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료의 재검토와 새로운 사료 발굴, 정본화 작업을 바탕으로 이미 자료집으로 간행된 사료와 그렇지 않고 흩어져 있는 사료를 종합하여 새롭게 자료집을 편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자료집을 통해 서지사항이 명시된 원본이 소개되고, 정본 작업을 거친 판독본과 학문적 언어학적으로 충실한 역주본이 제시된다면 최양업 신부 관련 연구는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 도표

**〈표1〉 최양업 신부가 작성한 사목서한 –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서한집』(2009)**

| 번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전거(A-MEP) | 비고 |
|---|---|---|---|---|---|
| 1 | 1842. 4.26 | 마카오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705~706 | 조선 입국 이전 작성 |
| 2 | 1844. 5.19 | 팔가자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757~758 | |
| 3 | 1846.12.22 | 심양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981, 984, 986 | |
| 4 | 1847. 4.20 | 홍콩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045~1046 | |
| 5 | 1847. 9.20 | 상해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049~1051 | |
| 6 | 1849. 5.12 | 상해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059~1062 | |
| 7 | 1850.10. 1 | 도앙골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067~1076 | |
| 8 | 1851.10.15 | 절골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085~1090 | |
| 9 | 1853.10.23 | (미상) | 마카오의 스승 신부 | 바우링 공사의 서한 | *발췌본 |
| 10 | 1854.11. 4 | 동골 | 홍콩 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278 | |
| 11 | 1855.10. 8 | 배론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149~1152 | |
| 12 | 1856. 9.13 | 소리웃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161~1164 | |
| 13 | 1857. 9.14 | 불무골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165~1170 | |
| 14 | 1857. 9.15 | 불무골 | 홍콩 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f.286~288 | |
| * | 추가 확인(1) | | | | |
| 15 | 1858.10. 3 | 오두재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207~1210 | |
| 16 | 1858.10. 4 | 오두재 | 홍콩 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298 | |
| 17 | 1859.10.11 | 안곡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219~1222 | |
| 18 | 1859.10.12 | 안곡 | 홍콩 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f.397~398 | |
| * | 추가 확인(2) | | | | |
| 19 | 1860. 9. 3 | 죽림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1227~1230 | |

**〈표2〉 최양업 신부가 작성한 사목서한 [추가 확인] – 『교회와 역사』 459호(2013년 8월호)**

| 번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전거(A-MEP) | 비고 |
|---|---|---|---|---|---|
| 1 | 1857.10.20 | 소리웃 |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 | (미확인) | *서한집(역주서)에 포함 안됨 |
| 2 | 1859.10.13 | 안곡 |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 | (미확인) |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표3〉 최양업 신부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천주가사와 가첩

| 번 | 가첩 이름 | 편수 | 천주가사 | 최양업 신부 관련 |
|---|---|---|---|---|
| 1 | 박동헌본 가첩 | 3 | 션종가, ᄉᆞ심판가, 공심판가 | '최도마신부져술'<br>'죠선 최신부 저술 종' |
| 2 | 김약슬본 가첩 | 15 | 삼셰대의, 텬당강론, 디옥강론, 십계강론, 령셰, 견진, 고히, 셩톄, 죵부, 신픔, 칠극, 혼비, 졔셩, 힝션, 이덕 | '대한국 탁덕 최도마 져술' |
| 3 | 김동욱본 가첩 | 5 | ᄉᆞ향가, (삼셰대의), 텬당이라, 디옥가, 십계강론 | '崔多默神父作 天主讚歌' |
| 4 | 김문규 가첩 | 14 | 삼셰대의, 뎐당강논, 디옥강논, 십계강논, 령셰, 견진, 고히, 셩톄, 죵부, 신픔, 칠극, 혼비, 졔셩, 힝션 | |
| 5 | 금베드루 가첩 | 16 | ᄉᆞ향가, 신덕, 망덕, 이덕, 뎨셩, 십계, 셩(셰), 견진, 고히, 셩톄, 죵부, 신픔, 혼비, 뎨셩, 힝션, 옥즁뎨셩 | |
| 6 | 한국교회사연구소본 성교회가 | 16 | 사향가, 신덕, 이덕, 졔셩, 십계, 령셰, 견진, 고히, 셩톄, 죵부, 신픔, 혼비, 칠극, 졔셩, 힝션, 옥즁뎨셩 | |
| 7 | 한국교회사연구소본 삼세대의(을) | 15 | 삼셰대의, 뎐당강논, 디옥강논, 십계강논, 령셰, 견진, 고히, (셩톄), 죵부, 신픔, (칠극), 혼비, (졔셩), (힝션), (이덕) | |
| 8 | 한국학중앙연구원본 가첩 | 11 | ᄉᆞ향가, 옥즁뎨셩가, 십계, (령셰), (견진), 고히, 셩톄, 죵부, 신픔, 혼비, 졔셩 | |

〈표4〉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이 작성한 서한 –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1997)

| 쪽수 | 작성자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전거(A-MEP, APF) | 내용 | 비고 |
|---|---|---|---|---|---|---|---|
| 21~27 | 모방 신부 | 1836. 4. 4 | 서울 | 르그레주아 신부 | Vol.1260, ff.77~92 | 신학생 선발 | 김2집, 39~49 |
| 27~29 | 르그레주아 신부 | 1837. 5. 2 | 마카오 |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 | Vol.322, ff.409~411 | 신학생 교육 | 김2집, 55~57 |
| 31~33 | 모방 신부 | 1836. 4. 4 | 서울 | 르그레주아 신부 | Vol.1260, ff.97~98 | 신학생 유학 | 김2집, 49~53 |
| 33~35 | 모방 신부 | (1836.12. 3) | 서울 | 조선 신학교 교장 | Vol.1260 f.99 | 신학생 선서 | 김2집, 65~67 |
| 35~39 | 모방 신부 | 1836.12. 3 | 서울 | 르그레주아 신부 | Vol.1260, ff.105~107 | 신학생 소개 | 김2집, 59~67 |
| 41~45 | 바랑탱 신부 | 1837. 6.13 | 마카오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03, ff.965~967 | 신학생 교육 | 김2집, 73~79 |
| 47~49 | 칼레리 신부 | 1837.10. 4 | 마카오 | 트송 신부 | Vol.303, ff.997~1000 | 신학생 교육 | 김2집, 79~85 |
| 51~53 | 칼레리 신부 | 1837.10. 6 | 마카오 | 트송 신부 | Vol.303, ff.727~730 | 신학생 교육 | 김2집, 85~89 |
| 55~61 | 르그레주아 신부 | 1837 | 마닐라 | (미상) | Vol.322, ff.421~460 | 마닐라 피신 문제 | 김2집, 91~103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쪽수 | 작성자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전거(A-MEP, APF) | 내용 | 비고 |
|---|---|---|---|---|---|---|---|
| 61~67 | 칼레리 신부 | (미상) | (미상) | 파리 신학교 뒤부아 신부 | APF, 11권(1838~ 1839) 64호, pp.359~362 | 최방제의 사망 | 김2집, 105~111 |
| 69 | 르그레주아 신부 * 메모 | 1838. 2.10 | (마카오) | 앵베르 주교 | Vol.322, f.483 | 신학교 문제 | 김2집, 113 |
| 73 | 르그레주아 신부 | 1839. 4.28 | 마카오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04, ff.83~86 | 마닐라 피신 | 김2집, 117~119 |
| 75~79 | 리부아 신부 | 1839. 5. 3 | 마닐라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04, ff.91~94 | 마닐라 피신 | 김2집, 119~125 |
| 81~85 | 리부아 신부 | 1839. 5.16 | 롬롬보이 | 르그레주아 신부 | Vol.304, ff.95~98 | 롬롬보이 이전 | 김2집, 127~135 |
| 87~91 | 리부아 신부 | 1839. 5.28 | 롬롬보이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04, ff.99~101 | 롬롬보이 이전 | 김2집, 137~143 |
| 91~93 | 르그레주아 신부 | 1839. 6. 5 | (마카오)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23, ff.134~138 | 롬롬보이 이전 | 김2집, 143~145 |
| 93 | 리부아 신부 | 1839. 6. 6 | 마닐라 | 곤잘레스 신부 | Vol.324, ff.128~129 | 롬롬보이 이전 | 김2집, 149~151 |
| 95~97 | 리부아 신부 | 1839. 6.23 | 마닐라 | 르그레주아 신부 | Vol.324, ff.145~149 | 신학생 건강 | 김2집, 153~157 |
| 97 | 리부아 신부 | 1839. 8. 2 | (미상) | 랑글루아 신부 | Vol.324, ff.6~9 | 신학생 건강 | 김2집, 157~159 |
| 99~105 | 리부아 신부 | 1839. 8.11 | (미상) | 르그레주아 신부 | Vol.324, ff.23~28 | 마카오 귀환 | 김2집, 159~167 |
| 105~107 | 리부아 신부 | 1839. 8.11 | 마닐라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24, ff.29~31 | 마카오 귀환 | 김2집, 167~171 |
| 109 | 리부아 신부 | 1839. 9.21 | (미상)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24, ff.32~37 | 마카오 귀환 | 김2집, 171~173 |
| 111 | 리부아 신부 | 1839. 9.29 | 마닐라 | 르그레주아 신부 | Vol.324, ff.43~56 | 마카오 귀환 | 김2집, 173~175 |
| 113 | 리부아 신부 | 1839.10.18. (?) | 마닐라 | 뒤부아 신부 | Vol.324, ff.67~71 | 마카오 귀환 | 김2집, 177~179 |
| 113~115 | 리부아 신부 | 1839.10.30 | 마닐라 | 칼레리 신부 | Vol.323, ff.175~176 | 마카오 귀환 | 김2집, 181 |
| 115~117 | 르그레주아 신부 | 1840. 3.15 | 마카오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23, ff.332~339 | 신학교 문제 | 김2집, 183~185 |
| 117~119 | *조선 신학교 교육 교수 | x | x | *메스트르, 베르뇌 신부 강의 담당 | 달레교회사 하권 32쪽 | 신학교 교육 | 김2집, 187 |
| 119~121 | 베르뇌 신부 | 1840. 9.24 | 마카오 | 쿠트랭 본당 신부 | HB 24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 신학생 교육 | 김2집, 189~191 |
| 121 | 베르뇌 신부 | 1840.10.27 | 마카오 | 르 망 교구의 부비에 주교 | HB 24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 신학생 교육 | 김2집, 191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쪽수 | 작성자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전거(A-MEP, APF) | 내용 | 비고 |
|---|---|---|---|---|---|---|---|
| 123~125 | 메스트르 신부 | 1841.11.17 | 마카오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Vol.577, ff.711~713 | 신학생 교육 | 김2집, 193~197 |
| 131 | 리부아 신부 | 1842. 2.11 | 마카오 | 르그레주아 신부 | Vol.304, ff.659~661 | 세실 함장, 신학생 요청 | 김2집, 201~203 |
| 133~139 | 리부아 신부 | 1842. 2.12 | 마카오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04, ff.663~668 | 메스트르 신부와 김대건, 세실 동행 | 김2집, 203~213 |
| 141~143 | 리부아 신부 | 1842. 4. 1 | 마카오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304, ff.673~678 | 최양업 교육 – 브뤼니에르 신부 | 김2집, 225~227 |
| 143 | 리부아 신부 | (1842. 7. 2 이후) | 마카오 | 대목구장들 | Vol.324, ff.332~352 | 대표부 상황 | 김2집, 233~237 |
| 145~149 | 메스트르 신부 | 1842.10. 2 | 강남, 창갈로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Vol.577, ff.723~725 | 최양업 중국행 | 김2집, 247~253 |
| 151~153 | 메스트르 신부 | 1842.10. 3 | 강남, 창갈로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Vol.579, ff.175~176 | 최양업 중국행 | 김2집, 255~257 |
| 155~175 | 브뤼니에르 신부 | (1842.10.22) | 태창하 | 파리 신학교 쥐랜 신부 | APF, 18권(1846) 105호, pp.116~130 | 요동 도착 | |
| 177~179 | 메스트르 신부 | 1842.11.14 | 요동 | 리부아 신부 | Vol.579, ff.177~179 | 요동 양관 출발 | 김2집, 259~267 |
| 181~183 | 브뤼니에르 신부 | 1842.12.10 | 요동 | 동료 신부 | APF, 16권(1844) 95호, pp.357~359<br>달레교회사 하 34~35쪽 | 요동 도착 | |
| 185~187 | 페레올 주교 | 1843. 2.20 | 몽골 |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707~709<br>페레올서한, 181~193쪽 | 소팔가자 생활 | 김2집, 269~271 |
| 187~189 | 메스트르 신부 | 1843. 3. 1 | 요동 | 리부아 신부 | Vol.579, ff.185~187 | 신학 교육 | 김2집, 273~279 |
| 191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1843. 3. 5 | 몽골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Vol.577, ff.729~731<br>페레올서한, 195~217쪽 | 신학 교육 | 김2집, 281~283 |
| 193 | 메스트르 신부 | 1843. 3. 7 | 요동 |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749~751 | 요동 양관 도착 | 김2집, 283~289 |
| 195 | 리부아 신부 | 1843. 6 | 마카오 | 데쥬네트 신부 | Vol.324, ff.433~434 | 성모성심회 가입 | |
| 197 | 메스트르 신부 | 1843.11.21 | 요동 | 리부아 신부 | Vol.579, ff.191~193 | 소팔가자 생활 | 김2집, 291~295 |
| 199 | 메스트르 신부 | 1844. 3.28 | 길림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Vol.577, ff.753~754 | 소팔가자 생활 | 김2집, 303~305 |

| 쪽수 | 작성자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전거(A-MEP, APF) | 내용 | 비고 |
|---|---|---|---|---|---|---|---|
| 201 | 페레올 주교 | 1844. 5.18 | 몽골 | 리부아 신부 | Vol.579, ff.188~193<br>페레올서한, 247~259쪽 | 차부제품 | 김2집, 307~309 |
| 203 | 메스트르 신부 | 1844. 5.19 | 길림 |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7, ff.761~762 | 부제 서품 | 김2집, 311 |
| 205 | 메스트르 신부 | 1844.12. 1 | 길림 | 리부아 신부 | Vol.579, ff.194~195 | 소팔가자 체류 | |
| 205~207 | 페레올 주교 | 1844.12.10 | 심양 | 리부아 신부 | Vol.579, ff.196~198<br>페레올서한, 261~275쪽 | 부제 서품 | 김2집, 313~315 |
| 213~215 | 메스트르 신부 | 1845. 5.25 | 팔가자 | 리부아 신부 | Vol.579, ff.199~200 | 페레올 주교의 반감 | 김2집, 321~323 |
| 215 | 페레올 주교 | 1845.11. 6 | 조선 | 포교성 장관 | Vol.577, f.205<br>페레올서한, 357~361쪽 | 조선 입국 시도 | 김2집, 381~383 |
| 217 | 메스트르 신부 | 1846. 3. 3 | 몽골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APF, 19권(1847) 112호, pp.242~246<br>달레교회사 하 97~98쪽 | 조선 입국 실패 | |
| 219 | 메스트르 신부 | 1846. 6. 1 | 몽골 | 마카오 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f.208~209 | 조선 입국 시도 | |
| 221 | 메스트르 신부 | 1847.11.16 | 상해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f.220~221 | 조선 입국 시도 | |
| 223 | 메스트르 신부 | 1848. 9. 8 | 상해 | 리부아 신부 | Vol.579, ff.230~231 | 조선 입국 시도 | 김2집, 391~393 |
| 225 | 메스트르 신부 | 1849. 4.17 | 상해 | 리부아 신부 | Vol.579, ff.235~236 | 사제 서품 | |
| 225~227 | 메스트르 신부 | 1849. 5.15 | 상해 | 리부아 신부 | Vol.579, ff.237~240 | 조선 입국 실패 | 김2집, 395~397 |
| 222~297 | *최양업, 사제 서품 | 1849. 4.15 | (상해) | × | 사식휘, 『강남전교사』, 218쪽, 225쪽 | 사제 서품 | |
| 231~233 | 바우링 공사의 서한 | 1853.10.23 | (미상) | 마카오의 스승 신부 | 영국 외교 문서 [발췌본] | | 개정판 서한집 포함 |
| 233 | 푸르티에 신부 | 1857.10. 2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HB-18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 체포 위기 | |
| 233~235 | 푸르티에 신부 | 1857.10.15 | 조선 | 루세이유 신부 | HB-18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 체포 위기 | |
| 235 | 페롱 신부 | 1859. 8.22 | 산막골 | 루세이유 신부 | Vol.579, ff.376~378 | 동래 방문 | |
| 237 | 페롱 신부 | 1859. 9.24 | 산막골 | 루세이유 신부 | Vol.579, ff.379~380 | 동래 방문 | |
| 237~239 | 푸르티에 신부 | 1859.10. 1 | 조선 | 아브라이여 신부 | HB-18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 체포 위기 | |
| 241~245 | 페롱 신부 | 1861. 7.26 | 조선 |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9, ff.565~567 | 선종 |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쪽수 | 작성자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전거(A-MEP, APF) | 내용 | 비고 |
|---|---|---|---|---|---|---|---|
| 245~247 | 페롱 신부 | 1861. 8. 4 | 조선 | 르그레주아 신부 | Vol.579, ff.575~577 | 선종 (1861.6.15) | |
| 247~249 | 베르뇌 주교 | 1861. 9. 4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HB-20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베르뇌서한 하, 193~203쪽 | 선종 | |
| 251 | 푸르티에 신부 | 1861.11. 2 | 조선 | 아브라이여 신부 | HB-18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 장례 | |

* 비고 – '김2집'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활동과 업적』(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 자료집 제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21[개정판]. 위 도표에서는 개정판의 쪽수를 명기했다.

**〈표5〉 조선대목구 선교사제의 서한 – 〈표4〉 외에 추가로 확인**

1)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의 서한 – 『페레올 주교 서한』(2012)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문서번호(A-MEP 전거) | 내용 | 역주본 쪽수 |
|---|---|---|---|---|---|
| 1845.10.29 | 강경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APF 19권(1847) 112호, pp.232~242 | 조선 입국 시도 | 349 |
| 1846. 9. 2 | 조선 | 마카오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210 | 조선 입국 시도 | 383 |
| 1846.11. 3 | 수리치골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Vol.577, ff.961~972 APF 19권(1847) 115호, pp.433~434 | 조선 입국 시도 | 447 |
| 1846.11. 7 | 조선 | 포교성 장관 | Vol.577, ff.977~979 | 조선 입국 시도 | 481 |
| 1847.11.25. | 서울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f.222~227 | 조선 입국 실패 | 499~503 |
| 1849.11.28. | 서울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f.246~248b | 조선 입국 시도 | 539 |
| 1849.12.30. | 조선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APF 23권(1851) 134호, pp.71~74 | 조선 입국 시도 | 561 |
| 1850.11. 5 | 조선 | 포교성 장관 | Vol.577, ff.1079~1080 | 사목 활동 | 573 |
| 1850.11.17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f.250~251c | 조선 입국, 활동 | 581 |
| 1851.12.20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f.253~255b | 사목 활동 | 589 |
| 1852. 9.19 | 서울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Vol.577, ff.1095~1098 | 사목 활동 | 617 |
| 1852. 9.20 | 서울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Vol.579, ff.262~264b | 사목 활동 | 625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2)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 주교의 서한 – 『베르뇌 주교 서한집』 상·하(2018)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문서번호(A-MEP 전거) | 내용 | 역주본 쪽수 |
|---|---|---|---|---|---|
| 1855. 1.22 | 만주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사목 부담 과중 | 상 65 |
| 1856. 7.15 | 서울 | 만주대목구 프랑클레 신부 | Vol.614A | 주교와 만남 | 상 259 |
| 1856. 9.21 | 서울 |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체포 모면 | 상 291 |
| 1856.11. 6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사목 활동 | 상 317~319, 325 |
| 1857.11. 9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시노드 참석 | 상 389 |
| 1857 | 조선 | 만주대목구 프랑클레 신부 | Vol.614A | 체포 모면 | 상 417 |
| 1857.11.17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물품 요청 | 상 457 |
| 1858. 7.19 | 조선 | 홍콩대표부 루세이유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시계 수리 | 상 519~521 |
| 1858. 8.14 | 조선 | 파리 신학교 지도 신부들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관할 구역 – 교우촌 증가 | 상 533 |
| 1858. 8.21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사목 부담 과중 | 상 587 |
| 1858.10.28 | 조선 |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시계 수리 | 상 619 |
| 1858.10.30 | 조선 | 만주대목구 프랑클레 신부 | Vol.614A | 사목 부담 과중 | 상 627 |
| 1859. 1.31 | 조선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물품 요청 | 상 645 |
| 1859. 8. 2 | 조선 |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체포 모면 | 상 689 |
| 1859. 8. 5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페낭 신학생 | 상 705 |
| 1859.11. 4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사목 활동 | 상 713 |
| 1859.11. 4 | 서울 | 만주대목구 프랑클레 신부 | Vol.614A | 체포 모면 | 상 721 |
| 1859.11. 6 | 조선 | 파리 신학교 지도 신부들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사목 활동 | 상 729~731 |
| 1860.10.17 | 조선 | 만주대목구 프랑클레 신부 | Vol.614A | 경신군난 | 하 73 |
| 1860.10.24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경신군난 | 하 91 |
| 1861. 8.20 | 조선 |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선종 | 하 157 |
| 1861. 8.22 | 조선 | 만주대목구 프랑클레 신부 | Vol.614A | 선종 | 하 163 |
| 1861. 9. 4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HB-20) 전기 2집, 247~249쪽 | 선종 | 하 195 |
| 1861.11.27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장례 | 하 247 |
| 1862.11. 4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사목구역 – 다블뤼 주교 인수 | 하 269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문서번호(A-MEP 전거) | 내용 | 역주본 쪽수 |
|---|---|---|---|---|---|
| 1862.11.18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br>알브랑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br>(HB-25~34)<br>달레교회사 하 340쪽 | 사목구역(경상도)<br>- 다블뤼 주교<br>인수 | 하 287 |
| 1863. 2.19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사목구역 -<br>다블뤼 주교 인수 | 하 341 |
| 1863. 2.20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br>알브랑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사목구역<br>(1856년) | 하 345 |
| 1865. 2.20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br>알브랑 신부 | 로마대표부 시복시성자료 Ⅲ | 주교의 회상 | 하 613 |

3) 제5대 조선대목구장 다블뤼 주교 서한

① 다블뤼 문서 제8권 -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2018)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문서번호(A-MEP 전거) | 내용 | 역주본 쪽수 |
|---|---|---|---|---|---|
| 1850. 9 | | 라로슈 부인 | 8권 ff.85~86 | 조선 입국, 사목 활동 | 138~139 |
| 1850. 9 말 | | 부모님 | 8권 ff.94~101 | 조선 입국, 사목 활동 | 152~153 |
| 1851.10 | 서울 | 부모 | 8권 ff.106~109 | 사목 활동 | 167 |
| 1852.10.17 | | 부모 | 8권 ff.110~113 | 사목 활동 | 173 |
| 1853. 9.18 | 손골 | 부모 | 8권 ff.114~121 | 신학생 교육<br>*사실 불확실 | 187 |
| 1856.11 | | 동생들 | 8권 ff.156~160 | 사목 활동 | 238~239 |
| 1856.11 | 서울 | 부모 | 8권 ff.161~164 | 체포 모면 | 245~246 |
| 1859. 8 | | 폴린느 누나(수녀) | 8권 ff.210~213 | 체포 모면 | 313~314 |
| 1859. 9 밀 | | 부모 | 8권 ff.218~220 | 체포 모면 | 324 |
| 1860.11.11 | | 부모 | 8권 ff.231~236 | 체포 모면 | 343 |
| 1861. 1.24 | | 부모 | 8권 ff.237~238 | 교회서적 번역 | 353 |
| 1861 9. | 서울 | 이시도르 동생<br>(신학생) | 8권 ff.239~241 | 선종 | 357 |
| 1861.10.10 | 서울 | 부모 | 8권 ff.242~245 | 선종 | 364~365 |
| 1862.10 | | 부모 | 8권 ff.250~256 | 사목구역 - 다블뤼 주교<br>인수 | 374, 382, 386 |
| 1864.10 | | 부모 | 8권 ff.279~285 | 사목구역 - 다블뤼 주교<br>인수 | 425~426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② 다블뤼 문서 제6권 – 동료 선교사들과 숙모에게 보낸 편지 [판독본](내포교회사연구소)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문서번호(A-MEP 전거) | 내용 | 번역[발췌] | 판독본 쪽수 |
|---|---|---|---|---|---|---|
| 1851.11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6권 f.140 | 사목활동 | 달레교회사 하 177쪽 각주1 언급 | 107 |
| 1852.10.18 | 조선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6권 ff.142~143 APF 25권(1853) 151호, pp.427~433 | 사목활동 | 달레교회사 하 179~185쪽 [요약설명] | 110 |
| 1853. 9. 6 | 조선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6권 ff.159~168 APF 26권(1854) 157호, pp.390~398 | 사목활동 | 달레교회사 하 202~205쪽 | 130~140 |
| 1854.11 | 조선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6권 f.176 | 사목활동 | 달레교회사 하 207~209쪽 [요약설명] | 149 |
| 1854.11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6권 f.180 | 사목활동 | | 154 |
| 1856.1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6권 f.225 | 사목활동 | | 201 |
| 1856.11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6권 f.40(?) | 사목활동 | 달레교회사 하 250쪽 [요약설명] | 202 |
| 1857.11.21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6권 ff.238(?)~240 | 시노드 참석 | 달레교회사 하 259~261쪽 | 209~211 |
| 1859. 9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6권 f.275~280 APF 33권(1861) 194호, pp.45~54 | 교회서적 ]번역 | 달레교회사 하 297~299쪽 | 234~237 |
| 1861.10 | 조선 |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 | 6권 f.313 | 선종 (1861.6.15) | | 260 |
| 1861.10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6권 f.317 | 선종 | | 263 |
| 1861.10 | 조선 |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 | 6권 f.319 | 선종 | | 264 |
| 1862.10 | 조선 | 만주대목구장 베롤 주교 | 6권 f.326 | 사목구역 – 다블뤼 주교 인수 | | 267 |

〈표6〉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서한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2020년 개정판)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비고(최양업 신부와 관련) | 역주본 쪽수 |
|---|---|---|---|---|
| 1842. 2.28 | 마닐라 | 마카오대표부 르그레주아 신부 | 신학생 최양업 마카오에 남아 있음 | 50~51 |
| (1842.9경) | (상해) | 마카오대표부 리부아 신부 | 최양업 신학생+브뤼니에르 신부 중국행 | 54~55 |
| 1842.12. 9 | 요동 (백가점) | 파리 신학교 르그레주아 신부 | 최양업 신학생 소팔가자 도착 (페레올 주교 체류) | 64~67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비고(최양업 신부와 관련) | 역주본 쪽수 |
|---|---|---|---|---|
| 1842.12.21 | (요동 백가점) | 마카오대표부<br>리부아 신부 | 최양업 신학생 양관 체류<br>(소팔가자 가기 이전) | 72~73 |
| 1843. 1.15 | 요동 (백가점) | 파리 신학교<br>르그레주아 신부 | 최양업 부모 순교 소식(김 프란치스코) | 76 |
| 1843. 2.16 | (요동 백가점) | 마카오대표부 리부아 신부 | 최양업 부모 순교 소식(김 프란치스코) | 83 |
| 1844. 5.17 | (몽골 소팔가자) | 마카오대표부 리부아 신부 | 최양업, 리부아 신부에게 인사함 | 91 |
| 1845. 4. 7 | (서울 돌우무골) | 리부아 신부 |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 입국 시도 –<br>신자들이 변문으로 갈 예정 | 131 |
| 1845.11.20 | (서울) | 마카오대표부 리부아 신부 |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 입국 시도 –<br>신자들 영입 준비 | 217 |
| 1846. 7.20 | 옥중 | 베르뇌, 메스트르, 리부아,<br>르그레주아 신부 | 최양업에게 모친 부탁 (김 신부 유언)<br>*한지에 붓으로 작성함 | 221 |

〈표7〉『전교회연보』(APF) 기사

| 권호쪽 | 작성자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내용 | 번역[발췌] |
|---|---|---|---|---|---|---|
| 11권(1838~1839)<br>64호, pp.359~362 | 칼레리 신부 | (미상) | (미상) | 파리 신학교 교장<br>뒤부아 신부 | 최방제의<br>사망 | 전기 2집, 61~67쪽<br>김 2집(개정판),<br>105~109쪽 |
| 12권(1840) 69호,<br>pp.190~191 | 페브르 신부 | 1838. 2.28 | 리팅 호<br>선상 | 라자로회<br>스테파노 신부 | 최방제의<br>사망 | × |
| 16권(1844) 95호,<br>pp.357~359 | 브뤼니에르<br>신부 | 1842.12.10 | 요동 | 동료 신부 | 요동 도착 | 전기 2집,<br>181~183쪽<br>달레교회사 하<br>34~35쪽 |
| 18권(1846) 105호,<br>pp.116~130 | 브뤼니에르<br>신부 | (1842.10.22) | 태창하 | 파리 신학교<br>쥐랭 신부 | 요동 도착 | 전기 2집,<br>155~175쪽 |
| 19권(1847) 112호,<br>pp.232~242 | 페레올 주교 | 1945.10.29 | 강경 | 파리 신학교<br>바랑 신부 | 입국 시도 | 페레올서한,<br>349쪽 |
| 19권(1847) 112호,<br>pp.242~246 | 메스트르<br>신부 | 1846. 3. 3 | 몽골 | 파리 신학교 교장<br>알브랑 신부 | 조선 입국<br>실패 | 전기 2집, 217쪽 |
| 19권(1847) 115호,<br>pp.433~434 | 페레올 주교 | 1846.11. 3 | 수리치골 | 파리 신학교<br>바랑 신부 | 조선 입국<br>시도 | 페레올서한,<br>447쪽 |
| 21권(1849) 124호,<br>pp.204~215 | 메스나르<br>신부 | 1848. 2. 5 | 요동 | 파리 신학교 교장<br>알브랑 신부 | 소팔자가자<br>생활 | × |
| 23권(1851) 134호,<br>pp.71~74 | 페레올 주교 | 1849.12.30. | 조선 | 파리 신학교<br>바랑 신부 | 조선 입국<br>시도 | 페레올서한,<br>561쪽 |
| 25권(1853) 151호,<br>pp.424~426 | 페레올 주교 | 1852. 9.19 | 서울 | 파리 신학교<br>바랑 신부 | 사목 활동 | 페레올서한,<br>617쪽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권호쪽 | 작성자 | 발신일 | 발신처 | 수취인 | 내용 | 번역[발췌] |
|---|---|---|---|---|---|---|
| 25권(1853) 151호, pp.427~433 | 다블뤼 신부 | 1852.10.18 | 조선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사목 활동 | 달레교회사 하 179~183쪽 [요약설명] |
| 26권(1854) 152호, pp.5~17 | 최양업 신부 | 1852.10.15 (1851.10.15) | 조선 (절골) | 르그레주아 신부 | 사목 활동 | 서한집(개정판) 84~117쪽 |
| 26권(1854) 157호, pp.390~398 | 다블뤼 신부 | 1853. 9. 6 | 조선 | 파리 신학교 바랑 신부 | 사목 활동 | 달레교회사 하 202~205쪽 |
| 29권(1857) 175호, pp.437~443 | 최양업 신부 | 1856. 9.13 | 소리웃 | 르그레주아 신부 | 사목 활동 | 서한집(개정판) 132~140쪽 |
| 32권(1860) 189호, pp.114~121 | 베르뇌 주교 | 1858. 8.14 | 조선 |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 | 사목 활동 | 베르뇌서한 상, 529~559쪽 |
| 32권(1860) 189호, pp.125~134 | 다블뤼 주교 | 1858.11.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사목 활동 | 달레교회사 하 286~294쪽 |
| 33권(1861) 194호, pp.45~54 | 다블뤼 주교 | 1859.9 말 | 조선 | 파리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 | 교회서적 번역 | 달레교회사 하 297~299쪽 |
| 33권(1861) 194호, pp.52~54 | 최양업 신부 | 1859.10.11 | 안곡 | 르그레주아 신부 | 사목 활동 | 서한집(개정판) 176~186쪽 |

**〈표8〉 신자들의 증언·진술 기록**

1) 신자들의 증언 기록

| 증언자 | 증언대상자 (순교자) |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 | 증언록 전거 |
|---|---|---|---|
| 김 프란치스코 | 김대건 신부 | 신학생 선발, 유학 | 기병 76회차 [역주본 2책 419쪽] |
| 이 마리아 | 김대건 신부 | 신학생 선발, 유학 | 기병 102회차 [역주본 2책 829쪽] |
| 선 막달레나 [1813년생] | (본인 소개) | 성인 허계임(막달레나)의 며느리. 시어머니를 통해 천주교를 배우고, 뒤에 최 신부에게 세례 받음 | 기병 64회차 [역주본 2책 247쪽] |
| (미상) 목격자 : 김 데레사, 서 아우구스티노 | 김 아우구스티노 | 온 집안사람이 세례 받음 [문경 한실 (현 문경시 마성면 상내리)] | 사적 3권 38쪽, 4권 13쪽 [역주본 1책 145쪽, 263쪽]<br>순집 3권 18뒤[국역본 170쪽] |
| 최 토비아 [아들] | 최 안토니오 | 최양업 신부의 일가 | 사적 6권 5쪽 [역주본 1책 473쪽] |
| 최응칠 | 최용은 암브로시오 | 세례를 받음 [안동]<br>*상주로 이주, 공소회장 | 사적 6권 68~69쪽 [역주본 1책 629쪽] |
| (미상) 목격자 : 전 마티아 [동생] | 전 야고보 | 맹인. 구전으로 천주교 배우고 구전으로 12명 식구 입교시킴. 최 신부에게 동시에 세례 받음 [청주 금봉 (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 사적 23권 168쪽 [역주본 5책 489쪽]<br>순집 2권 20뒤[국역본 122쪽] |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증언자 | 증언대상자 (순교자) |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 | 증언록 전거 |
|---|---|---|---|
| (미상) 목격자 : 유프란치스코 회장 (익산 도화정) | 김성우 | 최 신부 복사 [공주 반이울(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반여울)<br>*배교자 이치교[최 신부 마부]가 서울포졸 데려와 잡음. '최 신부 복사' 사실을 밝힘 | 사적 24권 3쪽 [역주본 5책 561쪽] |
| 손순화 요한[아들] 등 다수 | 조화서 베드로 [성인] | 신창 남방재[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살 때 최 신부의 마부로 활동 | 사적 16권 11~12쪽, 66~67쪽, 17권 28~29쪽, 24권 50~51쪽. [역주본 3책 133, 243, 353쪽, 5책 679쪽]<br>병재 76회차[손순화 증인], 80회차 |
| 김성서 요한 [1825년생] | (본인 소개) | 원주 태생으로 다블뤼 주교에게 입교하고 최 신부에게 세례 받음 | 병재 46회차(1900.1.1) 4권 515~517쪽. |
| 김흥민 요한 [1841년생] | 프티니콜라 신부 | 충청도 지역 사목할 때 신자와 갈등 발생. 다블뤼 주교 지시로 최 신부가 조사 보고함 | 병재 40회차(1899.12.5) 3권 443쪽. |
| 김성도 치로 [1829년생] | 프티니콜라 신부 | 지역 사목할 때 신자와 갈등 발생. 다블뤼 주교 지시로 최 신부가 조사 보고함. 프티니콜라 신부 사목지역 교체됨. | 병재 45회차(1899.12.31) 4권 505~506쪽. |

* 비고 –기병(『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사적(『병인치명사적』), 순집(『박순집 증언록』), 병재(『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차)

2) 관변측 기록

① 『일성록(日省錄)』 – 1839년과 1846년 기록

| 자료 | 일자 | 진술자 | 최양업 신학생 관련 내용 |
|---|---|---|---|
| 일성록 | 1839. 8. 7 | 김제준(이냐시오) | 1839년 3월 과천에 사는 최영환[최경환]이 와서 자기의 아들[김대건]의 편지를 주었는데 조신철이 북경에서 가져왔다고 함. 보낸지 2년이 지난 편지였음.[1837년 작성] 최가[최영환=최경환]의 아들[최양업]도 자기 아들과 함께 (외국에) 들어갔다고 들은 것 같음. |
| 일성록 | 1839. 8. 7 | 정하상(바오로) | 유가[유방제=여항덕]가 귀국할 때 우리나라 사람 3명을 데려갔는데 하나는 용인에서 사는 김제준의 아들 재복(再福, 김대건)이고, 또 하나는 과천에서 사는 최영환[경환]의 아들 양업(良業)이며, 나머지 하나는 홍주에 사는 최한(崔漢, 최가=최형)의 동생 방제(方濟)라고 함 |
| 일성록 | 1846. 5.30 | 김대건 [6차 진술] | 자기 이름은 김재복(金再福)이며 … 15세 때 서양인 유가[여항덕]와 조신철이 자기와 과천 최영환의 아들 양업(良業)과 홍주 최한지의 아들[崔漢之之子] 방제(方濟)를 데리고 변문으로 가서 중국으로 들여보냈음 |
| 일성록 | 1846. 5.30 | 김대건 [7차 진술] | (중국에) 들어갈 때 함께 간 과천 최가의 아들[최양업]은 각각 헤어져 생활하였으며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함 |

② 『좌포도청등록』 – 5인 신자의 심문 기록

| 자료 | 쪽수 | 심문 일시 | 이름과 세례명 | 나이 | 내용 (최양업 신부 관련) |
|---|---|---|---|---|---|
| 좌포 | 433 | 1866.12.24<br>(양 1867.1.29) | 김성오(金聖五)<br>베드로[버드루] | × | 기미년(1859)에 이미 죽은 조선인 최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버드루' 세례명을 지음 |
| 좌포 | 451 | 1868.윤4.4<br>(양 5.25) | 민효원(閔孝源)<br>라자로[羅子樓] | 49 | 경기 지평(砥平) 출신으로 19세 때 권경호(權景鎬)에게 천주교를 배워 대세를 받고, 을묘년(1855)에 권경호의 안내로 양인(洋人) 최 신부를 장동(長洞, 현 중구 회현동) 권대수(權大秀) 집에서 만나 고해성사를 받음. |
| 좌포 | 543 | 1869. 9.4<br>(양 10. 8) | 서상기(徐常基)<br>베드로[버드루] | 49 | 13,4년 전[1855~1856년] 자암(紫巖, 현 중구 봉래동) 정의배(丁義培)의 지휘로 그의 집에서 아국인(我國人) 최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지음 |
| 좌포 | 547 | 1869.11.17<br>(양 12.19) | 이 조이[李召史]<br>수산나[水仙花] | 70 | 30년 전(1839) 사서(邪書)를 이미 죽은 김 마르타[金末多]에게 배우고 그의 말에 따라 양인(洋人) 이[메스트르] 신부, 안[다블뤼] 주교, 장[베르뇌] 주교 및 아국인(我國人) 최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지음 |
| 좌포 | 548 | 1870. 2.17.<br>(양 3.28) | 김정인(金鼎仁)<br>시몬[詩文] | 51 | 용인 태생으로, 인천에 살던 이태봉(李泰奉) 도마시(都馬柴, 토마스)[심문 당시 이미 처형됨]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으며, 노(盧, 모방)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지음. 이후 안[다블뤼]·장[베르뇌]·최[양업] 세 주교(主敎)에게 성사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 심문 받을 때에 신앙생활을 위해 30년간 동정 생활을 했으며, 온 마음을 다해 신앙을 지켰기에 배교할 수 없다고 밝힘 |

[Provider:earticle] Downloade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참고문헌


**1. 최양업 신부가 작성한 자료**

임충신·최석우 역주, 『최양업 신부 서한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정진석,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가톨릭출판사, 2006.

배티 사적지 편, 『최양업 신부의 서한』(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1집), 청주교구, 1996.

청주 교구 배티성지·양업교회사연구소 편,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서한집』, 천주교 청주교구, 2009 (개정판).

김상균 역·방상근 주해, 「자료 소개 - 최양업 신부가 베롤 주교에게 보낸 서한」, 『교회와 역사』 459, 한국교회사연구소, 2013.8.

배티 사적지 편, 『기해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부록), 청주교구, 199.

『박동헌본 가첩』(김옥희 수녀(한국복자수녀원) 소장. 1913년 필사본)

『김약슬본 가첩』(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연대미상 필사본)

『김동욱본 가첩』(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연대미상 필사본)

『성교요리문답』(『한국 교회사 연구 자료 제15집』 제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영인)

『천주성교공과』(『한국 교회사 연구 자료 제17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년 영인)

**2. 동료 선교사제들이 작성한 자료**

배티 사적지 편,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2집), 청주교구, 1997.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2020년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개정판.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2021년 개정판.(『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활동과 업적』)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3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 2021년 개정판.(『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순교』)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베르뇌 주교 서한집』 상하,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지정환 판독·유소연 번역·방상근·김정환 감수,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다블뤼 문서 제6권 '동료 선교사들과 숙모에게 보낸 편지' 판독본[서봉세](내포교회사연구소 홈페이지 제공)

다블뤼 문서 제8권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판독본[지정환](내포교회사연구소 홈페이지 제공)

『전교회연보(Annales de la Propagantion de la Foi)』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편찬, 『Annales de la Propagantion de la Foi 한국 관련 기사 목록 및 내용 요약집 1824~1997』,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08.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편찬, 『Annales de la Propagantion de la Foi - Articles sur la Corée - 1 1830~185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08.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A-MEP Vol. 577, 579 필사 문서 판독 자료집 상세 목록』,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10.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 3. 신자들의 증언·진술 기록과 구전 자료

수원교회사연구소 대조역주,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2, 천주교 수원교구, 2011~2012.

수원교회사연구소 대조역주, 『병인치명사적』 1~6, 천주교 수원교구, 2020.

수원교회사연구소 대조역주,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 천주교 수원교구, 2021~2024. [간행 예정]

김영수 번역, 『박순집 증언록(ⅠⅡⅢ)』, 성·황석두루가서원, 2001.

『일성록(日省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 '원문검색서비스')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 상중하(영인본), 보경문화사, 198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배티 사적지 편, 『증언록과 교회사 자료』(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3집), 청주교구, 1996.

원주읍 정(규량) 신부, 「군난 때 미담」, 『경향잡지』 23권 659호, 1929.4.15.

원주읍 정(규량) 신부, 「군난 때 미담」, 『경향잡지』 23권 660호, 1929.4.30.

유영근 신부, 「최 도마 전기」 1~17, 『경향잡지』 43~44, 48권 1009~1057호, 1949.4~1956.4

### 4. 논저

김문태, 「천주가사 〈션죵가〉, 〈심판가〉, 〈공심판가〉의 창작 기반 고찰」, 『교회사연구』 5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이석원, 『19세기 동서양 충돌과 조선 천주교』,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이석원,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서울역사중점연구 10), 서울역사편찬원, 2021.

조지형, 「최양업 신부 소작 天主歌辭의 목적과 특성」, 『누리와 말씀』 34.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3.

차기진, 「조선후기 천주가사에 대한 재검토」, 『교회와 역사』 272, 한국교회사연

구소, 1998.
차기진, 「조선후기 천주가가 작가고」, 『부산교회사보』 7, 부산교회사연구소, 1999.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Abstract〉

# Analysis of Historical Materials on Father Choi Yang-eop

Lee, Seok-won
Head Researcher,
Suwo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

Since 2021 commemorates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Father Choi Yang-eop, there is a need to compile and organize the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him. This paper compiled the materials that have been introduced on Father Choi Yang-eop, identified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and presented the prospects and tasks for discovering new historical materials in the future.

Historical materials on Father Choi Yang-eop can be divided into the materials written by Father Choi Yang-eop himself and the materials written by others. The most well-known materials written by Father Choi Yang-eop are his letters, but there are other materials, including his Catholic gasa and translations. Materials written by others are further classified into materials written by the missionaries from the Society of Foreign Missions of Paris(MEP), testimonial records from Catholics, and oral records. This paper compiled and analyzed the historical materials on Father Choi Yang-eop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classification and presented tables of the content and references of the materials in the appendix.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research topics for future researchers. The search for more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Father Choi Yang-eop should continue. Researchers should search for materials related to Father Choi Yang-eop from the Chinese Catholic Church. Their search should also encompass relevant government documents from France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s well as church documents. At the same time, scholars should also review existing materials. A standardization process to determine the bibliography and content of the historical materials should be conducted first. Finally, a new collection of materials should be published by reviewing existing materials, discovering new historical materials, standardizing the materials by gathering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s and scattered materials.

**Keywords** : Father Choi Yang-eop,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Father Choi Yang-eop, the Society of Foreign Missions of Paris(MEP), letters written by the missionaries, A standardization process to determine the historical materials, testimonial records from Catholics, oral records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112.222.252.226 at Wednesday, November 10, 2021 3:58 PM

투고일 : 2021. 7.29
심사일 : 2021. 9. 1
게재확정일 : 2021. 9.16